

24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3941.59 (+96.03)		883.08 (+11.05)
	금리 (미국 9년)		환율 (한-달러)
	2.591 (-0.014)		1439.40 (-0.20)

m-커버스토리

워싱턴발 신호에 평양, 화답할까

한반도에 쏠린 눈

트럼프, 29일 1박2일 내한
“순방때 김정은은 만나고 싶다”
APEC 관전 ‘북미회담 성사’

얼어붙은 남북 관계에 훈풍이 다시 불지 주목된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까지 북한과의 대화를 적극 시도하고 있다. 개성공단에 자리해 있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와 종합지원사무소가 잇따라 철거된 지 5년여 만이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전 세계가 한반도를 주시하게 됐다. 경북 경주 APEC모임(10월31일~11월1일)을 둘러싼 관건은 북미 정상 간 회동 성사 여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마주하게 될까. 워싱턴발 신호에 평양이 화답한다면 지난 2019년 이후 6년 만에 둘은 다시 만난다.

트럼프는 지난 24일(미동부 시간) “아시아 순방 때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전용기를 타고 아시아 순방



지난 2019년 6월30일 판문점 자유의집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길에 나서기 전 ‘북한 지도자를 만날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만남이 성사될지 확신할 수는 없다”면서도 “김 위원장은 내가 그곳(한국)에 가는 걸 알고 있다. 나는 그와 매우 잘 지내 왔다”고 말했다.

앞서 백악관 고위 관계자의 언급도 전해진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언젠가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는 의지를 표명했는데, 이번 순방 일정에 아직까지는 예정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런 행보를 보일 여지는 남겨 두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는 이달 26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후 일본을 거쳐 29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내한할 예정이다. 초미의 관심사는 APEC 비가입국 북한이다. 비공식 일정의 북미 정상 양자회담은 김정은의 결단에 달렸다.

한편 만남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는 김정은의 핵심 수행원인 최선희 외무상이 자리를 비우는 일정에 따른 해석이다. 조선중앙통신은 26일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 및 벨라루스 외무성 초청으로 조만간 이들 국가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그의 방문 기간과 의제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25

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가급적이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도 만나고 북한에 트럼프월드도 하나 지어 서 저도 거기서 골프도 칠 수 있게 해 달라”고도 했다.

당시 김 위원장과 회동 시점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트럼프는 “나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있다. 그래서 (시기를) 논하는 건 어렵다”면서도 “그를 올해 안에 만나고 싶다”고 답했다.

북미 간 사상 첫 정상회담은 2018년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됐다. 주인공은 트럼프와 김정은이었다. 둘은 이후 2019년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회담을 가졌고, 같은 해 6월30일 판문점에서 다시 만났다. 이번에 마주한다면 네 번째 회동이다.

그로부터 1년 후인 2020년 6월 북한은 남북 간 통신연락망을 차단했고, 며칠 뒤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社告



메트로경제 ‘2025 뉴테크놀로지 포럼’

산업의 판도 뒤바꿀 핵심동력 ‘피지컬 AI’ 새 패러다임 시대

메트로신문과 메트로경제신문을 발행하는 메트로미디어가 ‘피지컬 AI가 바꾸는 산업 지형’이란 주제로 오는 11월 19일(수요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3층 페럼홀에서 ‘2025 뉴테크놀로지포럼’을 개최합니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은 다시 한번 획기적인 도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AI는 소프트웨어(SW)란 한계를 깨고 물리적 현실과 결합하는 ‘피지컬(Physical) AI’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젠슨 황도 피지컬 AI를 ‘AI 모델의 완성형’이라고 말할 정도로 피지컬 AI는 조만간 모든 산업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핵심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피지컬 AI는 단순한 SW 형태의 AI를 넘어, 센서를 통해 주위 현실 세계를 인지하고, 스스로 판단하여 물리적 장치를 움직이며 경험을 학습하는 ‘몸을 가진 AI’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AI가 거대언어모델(LLM)을 기반으로 언어 영역에 한정됐다면, 피지컬 AI는 AI가 스스로 보고 이해하고 행동하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환경을 만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2025 뉴테크놀로지포럼’에서는 피지컬 AI의 이해에서부터 산업별 혁신 사례, 휴머노이드와 로봇의 진화 등 피지컬 AI의 등장으로 인한 산업 지형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인사이트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주 제: 피지컬 AI가 바꾸는 산업 지형
- 일 시: 2025년 11월19일(수) 오후2~5시
- 장 소: 서울 중구 페럼타워 3층 페럼홀
- 주 최: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문 의: 2025 뉴테크놀로지포럼 사무국
(02)721-9826, forum@metroseoul.co.kr

metro[®]

모든 자산가격 뛰는 ‘에브리싱 랠리’ 당분간 지속

코스피 고공행진 4000 눈앞
뉴욕증시, 연일 최고치 기록
美 금리인하 기대 ‘3저 현상’
“과잉낙관 이후 조정” 우려도

3900 허들도 높지 않았다. 코스피가 3000선(종가 기준 6월 20일)을 넘어선 지 넉달 만인 지난 24일 3900선(3941.59)을 가볍하게 넘었다. ‘사천피’(코스피 4000)가 코앞이다. 이날 종가 기준으로 불과 58.41(1.48%)포인트 남겨두고 있다. 흘러넘치는 유동성과 인공지능(AI)발 반도체 기업 랠리,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지수를 쌍끌이하면서 최고치 경신이라는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뉴욕증시도 단기 변동은 있지만,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 치우는 분위기다. 24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1.01% 오른 4만 7207.12에 거래를 마쳤다. S&P 500 지수는 0.79% 오른 6791.69에, 나스닥은 1.15% 상승한 2만 3204.87에 각각 마감했다.

상승세가 주춤한 금과 은 시장도 여전히 자산시장의 중심에 있다. 자산 시가총액 분석 사이트 컴퍼니스마켓캡에 따르면 금은 시가총액 28조7190억달러(약 4경1203조1493억원)로 주식·귀금속·가상자산·상장지수펀드(ETF) 등 전 세계 주요 자산 가운데 가장 규모가 컸다. 은은 3개월 전만 해도 8위에 머물렀지만 최근 금과 함께 나란히 가치가 상승하면서 시가총액 2조7300억달러(3917조 40억원)로 6위에 올라섰다.

부동산 가격도 여전히 오름세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지난 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5% 상승했다. 2월 이후 3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기간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도 전주(0.13%)와 비교해 0.12% 올랐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로 나타난 ‘3저 현상’(저금리, 유가 하락, 저달러)과 화폐의 구매력(가치) 하락으로 모든 자산 가격이 뛰는 ‘에브리싱 랠리(Everything Rally)’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2023년의 에브리싱 랠리(Everything Rally)가 다시 재연되는 분위기다”면서 “당시와 비교해 예상보다 ‘끈적거리는 물가(sticky price, 한 번 오르면 잘 내려가지 않는 물가)’, 재정 리스크

및 관세 불확실성 등 일부 차이점도 있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 사이클의 지속 가능성과 4년래 최저 수준을 기록 중인 달러화 지수 등을 고려하면서 에브리싱 랠리 흐름이 재연되기는 충분한 환경이다”고 했다.

그러나 ‘버블(거품)’ 우려의 목소리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최고경영자(CEO)는 “지금은 과잉 낙관의 시기이며, 이런 시기 뒤에는 언제나 조정이 온다”며 과거 닷컴 버블 후 많은 투자자가 돈을 잃었던 일이 재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골드만삭스는 내년 12월 금값 전망치를 기존의 트로이온스당 4300달러에서 4900달러(약 693만원)로 상향 조정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K-전선, 북미·유럽 중심 수주 ‘날개’

LS·대한전선, 수주 사상최대
공격적 수출로 성장기반 다져

LS전선을 비롯한 국내 전선 기업들이 큰 폭으로 증가한 수주잔고에 힘입어 저수익 프로젝트를 정리하는 등 수익성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호황이 2040년까지 이어질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전선 업계 양강 기업인 LS전선과 대한전선은 글로벌 전력망 수요 확대에 따라 해외 수출을 공격적으로 확대하며 성장 기반을 다지는데 주력하고 있다. LS전선의 올해 6월 말 기준 수주잔고는 6조 2197억원으로, 지난해 말(6조 2741억원) 대비 다소 줄었으나

여전히 6조원대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했다. 지난 9월에는 대만 포모사4프로젝트(약 1600억원 규모)를 수주하며 10회 연속 해외 프로젝트 수주 기록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또한 유럽향 지중해케이블 내 초고압직류송전(HVDC) 비중을 확대했다.

대한전선의 올해 8월 말 기준 수주잔고는 3조2500억원으로 사상 최초로 3조원을 넘어서는 성과를 올렸다. 8월에만 전남 영광 안마해상풍력해저케이블(1816억원), 싱가포르 400kV 초고압 전력망(1100억원), 카타르 초고압 전력망(2200억원) 등 총 5100억원 규모의 수주를 확보했다.

〈2면에 계속〉

/원관희 기자 wkh@

메트로 한줄뉴스



- ▲29일 오전 10시29분 1분간 서울 전역 ‘이태원 참사’ 추모 사이렌
- ▲오세훈 “與, 10·15 대책 대폭 수정해야…공개 토론 제안”

/사진 뉴시스

- ▲장동혁 “이재명 폭거 맞서 박정희가 만든 대한민국을 지킬 것”
- ▲한동훈, ‘임대차 3+3+3’ 법에 “주거 재앙 가속화”

- ▲국힘 “차관 사퇴로 부동산 재앙 덮으려는李…대국민 사과하라”
- ▲국세·관세 모두 안 낸 공통체납자 700명 육박…1조원 넘어